벽의 욕망, 소외와 관음증

제 21회 석남미술상 수상작가 – 서혜영 전 가나 인사아트센터, 2. 20 ~ 3. 3

사진제공: 서혜영

사람들은 저마다 벽을 치고 산다. 세계로부터 벽을 친다는 것은 공적 공간을 사적 공간으로 전유하는 것이며, 그 공간 속으로 자기를 소외시키는 것이며, 그 공간 속에 세계를 불러들여 사유화(私有化)하는 것이다. 이로써 실재하는 세계와는 단절되고 밀폐된 또 하나의 허구적인 세계를, 세계의 축소판을 축조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은 저마다의 세계를 갖게 된다.

인류의 역사는 이렇듯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광장의 논리학과 방의 논리학, 실재하는 세계와 허구적인 세계, 사회학과 심리학이 긴밀하게 직조된 헤게모니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름하는 장치가 벽이다. 정론(Logos)에 비교되는 가설(Doxa), 과학에 비교되는 연금술과 점성술, 정신분석학이 낳은 무의식과 욕망, 상상력의 산물인 예술이 이런 벽안의 논리학과 깊이 연루돼 있다.

21회 석남미술상을 수상한 서혜영은 벽이 갖는 이런 공간적이고 구조적인, 실존적이고 심리적인, 인식론적인 해석의 가능성에 천착한 작가이다. 흔히 벽은 이분법적인 문법에 기초해 있기 마련이다. 공간을 가름하는 고형의 틀이 그렇고, 연속적인 시각을 불연속적으로 단절시키는 불투명의 소재가 그렇다.

그러나 서혜영의 작업에 등장하는 벽은 양가적이다. 예컨대 투명한 수지를 이용한 입체 구조물이나 유리판 또는 투명 필름을 소재로 한 벽에서 외부와 내부 공간은 구분되면서 서로 통한다. 이렇듯 외부와 내부 공간이 서로 통하는 벽이란 사실상 벽으로서의 조건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렇듯 벽으로서의 조건을 위반하는 투명한 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아마도 투명한 벽은 사적 공간에 대한 강박증과 함께 공공연하게는 그 사적 공간이 공적 공간에 의해 침해받고 있다는 공포증을 동시적으로 함축하고 있을 것이다. 흔히 벽이 공적 공간을 사적 공간으로 전유하는 것이라면, 투명한 벽은 이와는 반대로 사적 공간을 공적 공간으로 전유한다. 이로써 작가는 실재하거나 심리적인 벽의 실체를 뒤집고 해체시킨다.

CC 카메라가 장착된 모니터 작업에 의해 이런 내부와 외부간의,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간의 해체된 공간 개념이 더욱 극대화된다. CC 카메라는 자기반성적인 기제일 뿐 아니라 감시와 억압의 기제이기도 하다. 예컨대 엘리베이터와 화장실의 (투명한) 벽은 이제 더이상 밀폐감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나아가 그 벽을 CC 카메라가 대신한다. 그런가하면 투명 필름에 프린트한 지지대를 이용해 걸쳐놓은 벽이 내부와 외부 공간을 투과할 뿐 아니라 벽의 고형성마저 해체시켜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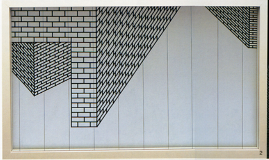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제 더이상의 사적 공간은 불가능한 것인가. 작가는 그 가능성을 알에서 찾는다. 여기서 알과 벽 구조물이 갖는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생태적인 공간 개념과 인공적인 공간 개념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알마저도 그 표면에 장착된 CC 카메라로 인해서 관음증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된다. 이는 소외를 내재화하는 동시에 관음증으로 그 소외를 외재화하는 사적 공간의 이중성을 말해준다. 즉 소외와 관음증은 사적 공간을 규정하는 동시에, 사적 공간을 공적 공간으로 전유하고 변질시키는 심리적 기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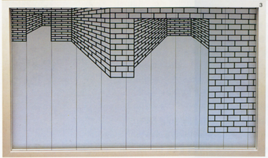
서혜영은 벽을 세우는 대신 해체시키는데, 그것은 벽이 더이상 사적 공간을 보장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벽 자체가 하나의 환상이나 기호 또는 한낱 인식의 산물에 지나지 않음을 밝힌다. 예컨대 근작에서의 라인 테이프(Line Tape)로 축조된 가상의 벽이 이러한 사실을 말해준다.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라인 테이프로 축조된 벽은 전적으로 전시를 위한 일회용일 뿐 아니라 벽 고유의 양감(Mass)마저 결여하고 있는 한낱 일루전에 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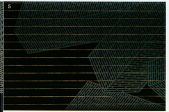
그런가하면 작가가 벽을 축조하기 위해 도입한 브릭(Brick)은 마치 꼬마들의 장난감 모형 쌓기에서처럼 벽의 정형성을 위협한다. 즉, 브릭의 조합에 의한 벽의 형상화는 전적으로 우연적인 것이다. 사실상 브릭은 마치 세포와도 같이 모든 가능한 형상에 대해 열려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로써 서혜영의 작업은 벽이 갖는 공간적이고 인식론적인 해석으로부터 점차 이런 소립자로서의 유니트(Unit)가 갖는 가변적이고 자기증식적인 유희에로 옮아오고 있다.

어느 경우이건 그 저변에는 사적 공간에 의한 세계의 사유화가 불가능하다는 회의가 그 저변에 깔려 있다.

고충환 · 미술평론가







1. 전시장 전경
2+3. 서혜영 作, '(Un) Fold the Brick', Frost Glass · Fire Proof Glass · Masking Tape, 500 X 300mm, 2002
4+5. 서혜영 作, 'Brick Puzzle', Black Mirror · Fire Proof Glass · Silk Screen, 460 X 330mm, 2002

서혜영

1968년생. 이화여자대학교 조소과, 밀라노 브레라 국립미술학교를 졸업하였으며 2001년까지 네 차례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을 개최한바 있다. 1981년 제정되어 매년 35세 미만의 젊은 작가에게 수상되는 석남미술상은 그동안 24명의 작가를 배출하였다. 작가는 그동안의 개인전에서 보여준 스케일 큰 작업과 예술적인 성취를 인정받아 수상에 이르게 되었다.